

인쇄문화산업진흥추진위원회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공청회 열어

인쇄중주국 자부심 회복과 문화선진국 도약 기대

인쇄문화산업진흥추진위원회(위원장 홍우동)는 지난 달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인쇄진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박기태 국회 부위원장, 이재호 한나라당 원내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인쇄관련단체 및 업체 등 인쇄관련자 2천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김재윤 의원은 “문화 산업의 근간인 인쇄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존경의 뜻을 밝히며 “국내 수출·문화 산업에 인쇄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신구대학 전영표 명예 교수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개요’를 청주대학교 박문렬 교수는 ‘직지’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으며 동국대학교 이재수 겸임교수는 ‘인쇄업체의 품질인증제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전했다.

신구대학 전영표 명예 교수는 “현재 국내 인쇄업계는 중국의 영향 등으로 도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속



▲ 인쇄문화산업진흥추진위원회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공청회 열어

출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국내의 인쇄 환경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쇄기술자를 양성해 기술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정토론에서 열린우리당 안민석 문화관광부 의원은 법률 제정의 어려움을 말하고 인쇄진흥법 6조의 '수출진흥센터의 설립' 과 11조의 '인쇄인의 날' 등은 너무 추상적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 현재 국가표준원이나 인쇄관련협회에서 품질인증제를 실행해야 한다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서 교육부분을 법으로서 인쇄시장에 지원해야 한다 ▲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고품질의 인쇄물로 어린이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포장기계협회

4월 정기이사회 개최

해외전시 한국관 구성 밝혀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지난 4월 26일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신규회원사로 소프트 캡셀기 전문 생산업체인 (주)스카이 소프트 젤(대표이사 이화숙)이 정회원사로, 금속검출기 전문생산업체인 (주)화인 메카트로닉스(대표이사 이시중)가 특별회원사로 가입승인했다.



▲ 한국포장기계협회 4월 정기이사회 개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년도 포장기계대상(제7회) 수상 후보자 모집 안내(오는 7월 5일까지 접수 마감)와 KOREA PACK 2006 전시회의의 성과를 보고했으며 이번달 열리는 러시아 모스크바 rosupak 2006 전시회와 7월의 중국 상해 ProPak China 2006 전시회의에 대한 한국관 구성 설명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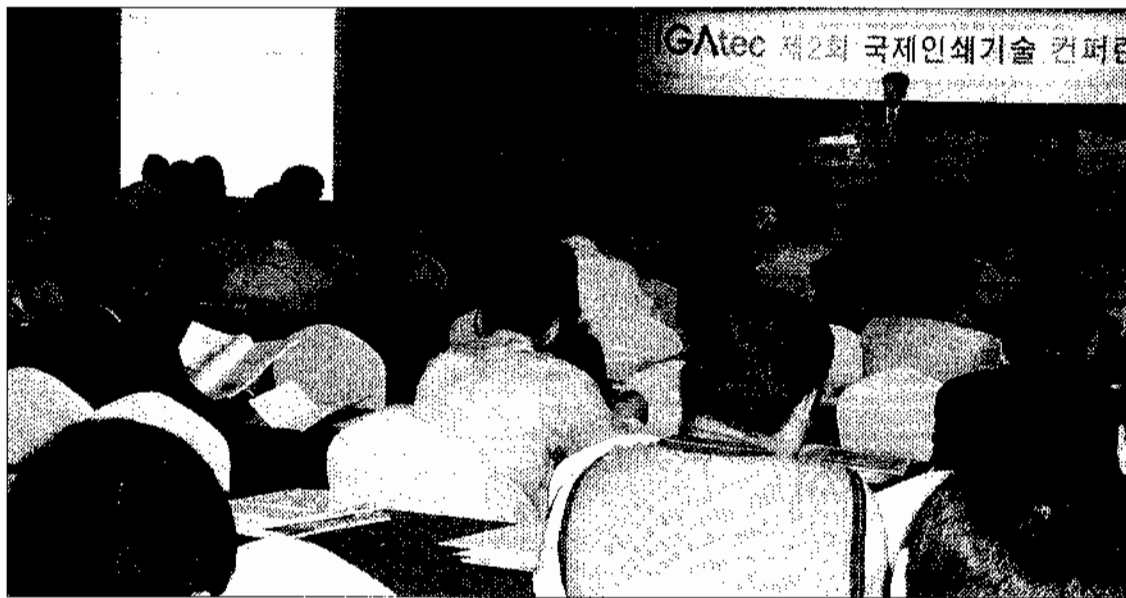
인쇄기술정보협회

제2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개최

향후 5년, 인쇄산업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쇄산업'

대한인쇄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와 월간인쇄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국제인쇄기술 컨퍼런스가 지난 달 19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인쇄산업의 발전적 내일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방향과 솔루션을 포함, 세계 인쇄산업을 이끌어가는 굴지의 기업들과 관계자들이 참석, "향후 5년, 인쇄산업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쇄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프린트 전자제품, 인쇄산업의 새로운 전기'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 세계적 인쇄산업의 동향과 생존전략 특수인쇄가공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활로 모색 ▲ 씨멀라미 시스템((주)지엠피 김양평 대표이사) ▲ 상업용 인쇄시장에서의 시간 및 비용 절감, 인쇄품질 향상을 위한 아그프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영향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수인쇄 효과 - 인라인 수성 및 UV 코팅 ▲ 부가가치 인쇄와 실용적인 기술혁신 ▲ 인쇄시장에서의 뉴지디지털 POD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향후 5년 인쇄산업의 핵심을 RFID 태그, 스마트 라벨의 시장 활성화로 보고, 원가 관리와 효율 관리 측면에서 UV 양면 인쇄의 발전, 패키징 인쇄 및 라벨 인쇄의 증가를 전망했다. 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인쇄기술정보협회 제2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개최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지난 해 스티로폼 재활용 67.1% 달성

재생원료 및 제품 5백70억원 상당 수출

스티로폼 재활용율이 2003년 59.2%, 2004년 64.1%에 이어 2005년에는 67.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김흥기)는 지난 해 스티로폼 포장재의 총 발생량은 3만8천2백95톤, 그 중 67.1%인 2만7천7백12톤이 재활용됐으며 이중 대부분인 2만2백30톤(57.887천 달러)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재생원료와 제품으로 수출되었다고 최종 집계했다.

이는 스티로폼 재활용 산업이 경제 성장과 수출산업 촉진에 일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집계 결과다. 스티로폼은 재생수지 뿐만 아니라 욕실발판, 사진액자, 건축용 합성목재 등 다양한 플라스틱 재생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동제품들은 환경마크 및 GR 마크를 획득했다.

특히 스티로폼이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배경은 지난 96년부터 전국 일원 지자체들의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행 이후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고도의 재활용제품 생산 기술 등이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재활용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그림액자프레임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인 그림 및 액자전시회(2005년 9월 미국 애틀랜타 개최)에 참여하여 미국 액자프레임 전시회인 미국 데코엑스포에 참가한 한국의 중소기업체들을 후원하고 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등의 활동과 함께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가전업체의 완충포장재 역루트 회수·재활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재활용된 스티로폼을 용도별로 보면, 재생수지로 2만3천8백9톤(92.6%), 경량폴로 1천54톤(4.1%), 섬유코팅제로 8백48톤(3.3%)이 재활용되었다. 또한, 배출처 별로는 가전대리점이 가장 많은 5천50톤, 가정 및 일반업소가 5천43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백화점 및 유통업체가 4천8백22톤, 농수산시장이 4천6백13톤 순으로 분리 회수 재활용됐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 93년 발족한 단체로 금호석유화학, 동부한농화학, SH케미칼,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스프 등 스티로폼 원료 제조업체 6개사와 스티로폼 포장재 가공업체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 2백80여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2003년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2006년도에 협회는 스티로폼 재활용 목표 69% 달성, 생산자책임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의무량 초과달

성, 스티로폼 제품 이미지 개선 강화, 정부정책 개선을 통해 농산물 포장 표준출하규격 대상에 EPS 상자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요청 하는 등의 스티로폼 포장재 용도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의 탄화수소 가스를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2%만이 원료인 자원 절약형 소재로서 완충성과 방수성, 보온성, 경량성 등이 뛰어난 제품이어서 현재 가전제품의 포장재, 농수산물 상자, 주택단열재, 양식용 부자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용 후 버려지는 스티로폼은 가정의 경우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고 가전대리점은 역루트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점이나 다량배출업체는 회수하여 감용하거나 재생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춘계 체육대회 개최

회원간 친목 다져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달 21일 김포 대명 초등학교에서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춘계 체육대회 개최

김영호 회장은 "매년 5월 셋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체육대회에 후원해주는 회원 업체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향후 정보공유 등을 통한 친목교류를 통해 업계가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약 70여명의 포장기술인들이 참여한 이번 체육대회는 농구, 축구, 족구, 배구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협의회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프라스틱연합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국내 플라스틱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사)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가 지난 달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06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가 경제와 국내 플라스틱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단체표창으로 제일 큰 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은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03년 6월 양분되어 있던 플라스틱협동조합의 대통합을 이뤄냈고 공동판매, 공동구매, 원자재 가격안정, 품질향상 및 기



▲ 한국프라스틱연합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술개발,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업계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플라스틱 원료가격안정을 위하여 금년부터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관철시켜 플라스틱업계의 만성적으로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플라스틱산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주류수입협회

서울국제주류박람회 개최

비즈니스 데이 강화

(사)한국주류수입협회(회장 박병권)가 주최하고 (주)한국국제전시가 주관한 제4회 서울국제주류박람회가 지난 달 2일부터 4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해외 대사관 및 무역 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국내 최대의 와인 및 주류전문전시회로 자리 잡은 이 행사는 2백10여 부스로 1백10여개의 업체가 참여, 아시아 최대의 와인 및 주류전문전시회로 거듭났다.



▲ 한국주류수입협회 서울국제주류박람회 개최

특히 전시회의 비즈니스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데이를 강화하여 관련 업계의 실제적인 마케팅 장을 마련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보다 효과있는 비즈니스를 위해 바이어를 위한 전문가 테이블링룸을 별도로 운영하여 다소 약점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의 효과적인 면을 보완했다.

미국농업무역관, 이탈리아 해외 무역공사,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 소펙사, 호주대사관 등의 국내 주요 와인 수출국들의 관련기관이 후원으로 참여해 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로 평가 받았으며 상황 버섯발효주를 생산하는 '천년약숙', 광주요의 '화요', 일본 전통주로 유명한 '월계관', 아사히 맥주의 '롯데아사히주류', 중국 술을 취급하는 '태산주류' 등의 업체도 참가했다.

(사)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식품기기 품질인증업무 공신력 강화 기대

(사)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회장 김규태)는 지난 달 15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국민 보건 향상 및 양기관 발전 도모를 위해 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규태 회장은 "현재 국내 식생활의 친환경성과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전한 먹거리는 식품 본래의 위생뿐 아니라 이를 가공 취급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 등 관련 식품기기가 위생적일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기기 품질인증업무에 관한 공신력 강화 및 신뢰도 증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는 지난 해 11월 8일 식약청으로부터 식품 포장용기 및 기구 기계 등 식품기기의 제품품질인증 및 제조공장의 우수식품기 기제조관리기준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 받았다.



▲ (사)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무협약 체결